

임실 오수파크골프장 ‘각광’

전국 각지 파크골프 동호인 방문… 월 4000명 이상 찾아 지역 명소 자리매김

임실군의 대표 스포츠 여가시설인 오수파크골프장이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서 천연 잔디와 자연 친화적 조경으로 재방문율이 높은 힐링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총면적 43,350㎡, 27홀(9홀×3코스) 규모로 조성된 오수파크골프장은 탁 트인 들녘과 시원한 천변의 수변 경관으로 찬사받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끊이지 않아 월 4천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북 인근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 동호인들까지도 임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늘고 있으며, 가족 단위 이용객과 시니어 골퍼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오수파크골프장은 천연 잔디 코스, 야외 화장실, 곳곳에 쉼터, 풍부한 수목 조경이 어우러져 공원처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잔디가 손상된 구간에는 보수공사 및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혼자 방문한 이용객도 현장에서 즉



임실군의 대표 스포츠 여가시설인 오수파크골프장이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서 천연 잔디와 자연 친화적 조경으로 재방문율이 높은 힐링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석 팀을 구성하여 함께 플레이할 수 있어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4인 1팀 기준 27홀 라운드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며, 4km 보행거리로 해당해 유산소 운동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 임실N치즈페스티벌과 함께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오수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결혼전 시상금은 1위가 남녀 각각 100만원이다.

예선전 참가 접수는 8월 7일까지이

며,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파크골프협회(063-644-1230)로 문의하면 된다.

오수파크골프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까지 개장하며(매주 월요일 정기휴장), 전화 예약(063-640-2891)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오수파크골프장은 건강한 여가생활은 물론 타지역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전국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원=전충영 기자

집중호우 선제 대응체계 가동

남원시, 비상근무·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사전 대피 등 총력

남원시가 최근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24시간 상시 가동, 15개 협업부서 및 23개 읍면동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관리와 긴급조치로 시민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동부산악권(운봉, 인월, 아령, 산내) 지역에 대해 선제적 1단계 비상체계를 운영, 산사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안전문자를 신속히 발송하고, 산사태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이백 입촌마을 외 5개 지역에 대해 주민 29명을 사전에 대피시켜 선제적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 26개소 및 산사태 취약지역 중점관리 대상지 48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활동을

실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곳은 즉시 조치했다.

또한, 하천 산책로 21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진입로 8개소, 침수 우려지역의 자동차단시설 41개소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금지면 내기 지하차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아울러 남원시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펌프장,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정비를 상시 병행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왔으며, 이밖에 도 남원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8월 1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요천 물놀이 축제장이 범람하고 일부 시설물 유실 피해가 발생하자 비상근무 체제 가동과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해 오는 8월 8일부터 축제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총사업비 4억 1,411만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대와 전기 화물차 5대 등 총 25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따라 최대 1,21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60만원, 화물차 63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과 군 내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기관으로 제한된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



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추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구매 희망자는 먼저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고,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상수도시설 운영 비상대책 기간 운영

순창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생활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상수도 시설 운영 비상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여름철 관광객 증가와 폭염 장기간화로 인한 상수도 수요 급증에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상수도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 복구반을 편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수요 예측에 따른 단계별 급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이상 발생 시 즉각 응급 복구를 통해 급수 중단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10월 16~19일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운영

남원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4일간 개최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은 첨단 드론 기술과 로봇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 축제다. 남원시는 국제행사의 성격에 맞춰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푸드트럭 존, 다문화 음식 존, 로컬푸



드 존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고는 푸드트럭 존 영업자 총 15개 업체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 차량 구조 변경 승인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자는 세계 각국의 음식 또는 행사 분위기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메뉴를 구성해야 하며, 매뉴당 판매 가격은 최대 10,000원 이하로 제한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요구되고, 위생 상태, 차량 디자인, 조리 시설 관리 등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8월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방문(남원시청 별관 1층 신청장산업과 드론스포츠타운) 또는 이메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남원시가 조성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체력단련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체력단련실은 시민 누구나 쉽게 운동과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유산소 및 근력운동이 가능한 최신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사전 예약

을 통해 개별 체력 상태를 진단받고, 운동지도자 등의 전문 인력으로부터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건강상담실, 심폐소생술 체험관, 다목적 교육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슬로우조깅, 걷기 동아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해 조기 건강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집중호우 대비 긴급 현장 점검 실시

임실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일 긴급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진관 부군수와 업무 관계자들이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을 현장 점검했다.

안전 점검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누적 강우량이 높았던 오수면, 삼계면, 성수면의 산사태 취약지역 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진관 부군수는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 연결 지역 민가의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지역 내 주민 사전대피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홍보

순창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000) 또는 소진공 통합콜센터(1533-0100, 내선 2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별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